WWW.KMI.RE.KR

제 218호 · 2013년 8월 22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중국 "12.5" 기간 내, 내몽고 철도건설 700억 위안 투자
2. MOL, 중국 SINOPEC과 LNG선 기간용선계약 체결 예정
3. 운송 및 물류분야 인수합병 거래, 2사분기에 다소 증가
4. Maersk Line, 선박의 경제속도 운항을 통해 해운시장 불황돌파

물류시장동향

1. UPS, 중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을 위해 물류시설 확장계획 발표
2. 러시아 첼랴빈스크지역에 Yuzhnoural'skii 물류단지 설립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중국 "12.5" 기간 내, 내몽고 철도건설 700억 위안 투자

○ 내몽고 자치구정부와 중국철도총공사는 베이징에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에 내몽고에 7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철도를 건설키로 함
- 신설되는 철도의 총 길이는 3,000km로 중국 내에서 내몽고 지역의 철도 비중이 11%로 증가될 예정임

○ 2013년 건설 프로젝트에 약 2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우(锡乌)철도와 준숴(准朔)철도 건설 등이 있음
- 시우철도의 노선은 우란하오터(乌兰浩特)~후어린허(霍林河)~바이인화(白音华)~시우주무친기(西乌珠穆沁旗)~시린하오터(锡林浩特)까지이며 준숴철도는 산시성의 숴저우시(朔州市)와 신저우시(忻州市)를 거쳐 내몽고 석탄도시인 어얼둬쓰시(鄂尔多斯市)까지 연결됨
- 또한 후장여객전용선(呼张客专)을 전면적으로 개통하고 바이아(白阿)철도의 1단계 확장공사를 진행 계획임

○ 이번 공사는 2015년 완공될 예정으로 중국 동서부 지역 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전망임
- 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석탄, 전력 등의 외부수송 능력의 제고를 통해 중동부 지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내몽고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중동부 지역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 자원개발에만 의존했던 내몽고는 에너지, 공업, 비철금속가공 등 다양한 산업의 물류체계를 확립하여 발전기회를 맞이할 전망임

< 시우철도노선 계획도 >



자료 : www.news.cn, 2013.8.15.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 MOL, 중국 SINOPEC과 LNG선 기간용선계약 체결 예정

○ MOL, SINOPEC과 2~3척의 LNG선에 대한 기간용선계약을 체결할 예정
- 해당 LNG선들은 SINOPEC이 호주 AP LNG(Australia Pacific LNG) 프로젝트의 수입 LNG 수송에 이용될 예정임
- 호주 Gladstone항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AP LNG 프로젝트는 당초 호주의 Origin Energy사와 미국의 ConocoPhillips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 후 SINOPEC이 25%의 지분을 인수함
- 그에 따라 SINOPEC은 2015년부터 AP LNG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LNG를 매년 760만 톤씩 수입할 예정임

○ 비록 SINOPEC이 이미 후둥중화조선소(Hudong-Zhonghua Shipbuilding)에 174,000CBM급 LNG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으나 AP LNG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최대 6척의 LNG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중 162,500CBM급 LNG선 2척에 대해 SINOPEC의 자회사인 Unipec이 BW Group과 일당 7.5만 달러의 용선료에 기간연장 옵션 포함 조건으로 3년간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첫 번째 선박은 2014년 11월에, 두 번째 선박은 2015년 3월에 인도될 예정임[1)]
- 그 외에 추가 용선여부는 AP LNG 프로젝트의 생산계획 및 운송일정을 분석한 후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올해 4월 China Shipping Group과 UNIPEC 및 MOL은 AP LNG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LNG선 6척을 신규 발주하였으며, 이들 선박은 2016년 4월에서 2017년 11월 사이에 인도될 예정
- 해당 선박들에 대한 80% 지분은 이들 3사의 합자회사인 CESI(China Energy Shipping Investment)사가 보유하며, 나머지 20%를 MOL이 보유함
- 한편, CESI에 대한 지분은 China Shipping LNG사와 SINOPEC이 각각 51%와 49%를 보유함
- 이미 발주한 6척 외에 추가로 2척에 대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옵션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UNIPEC에 의하면, 해당 수입 LNG의 하역항은 칭다오(Qingdao)항, 텐진(Tianjin)항, 베이하이(Beihai)항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SINOPEC은 현재 이들 항만에 LNG 하역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음

자료 : www.tradewindsnews.com, 2013.8.13.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Unipec의 초기 입찰공고에 의하면 필요한 선박규모는 13.8만~17.4만 CBM으로 용선기간은 2~3년이며, 그중 3척은 2015년 9월부터, 2척은 2016년 3월부터, 나머지 2척은 2016년 연말부터 교부를 원함

□ 운송 및 물류분야 인수합병 거래, 2사분기에 다소 증가

○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ricewaterhouse Coopers(PwC)에 따르면 2013년 2사분기 운송 및 물류 분야의 인수합병이 약간 증가

- 2012년 2사분기에 공표된 인수합병 거래가 51건 143억 달러 이었지만 올 2사분기에는 거래 건수는 31개, 152억 달러로 거래 금액이 약간 증가했음
- PwC가 인용한 인수합병 거래 건은 실제 성사 거래만이 아닌 모든 공표된 인수합병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중간에 포기되었거나 연기된 거래도 포함하고 있음

○ 2013년 2사분기의 평균 거래규모는 4억 9,000만 USD로 증가로 작년 2사분기의 건당 평균 거래 규모가 2억 8,100만 달러였던 것이 비해 증가함

- PwC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3 건의 거대 사회기반시설 거래가 거래규모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특히 남미와 유럽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거래가 운송 및 물류분야의 인수합병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운송 및 물류분야의 인수합병 시장의 거래환경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이한 수준임

- 지난 10년 간 세계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으나 회복세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임
- 특히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인수합병에 있어 아직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가 다소 침체되어 있음

○ 단 셰일가스 개발 및 최근 생산 분야의 호전으로 미국의 단기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셰일가스와 생산 분야의 호전은 향후 5~10년 간 미국, 특히 북서중부 지역의 운송산업에 큰 영향일 끼칠 것임

○ 또한 투자자들은 운송수단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 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3년 2사분기에 이뤄진 거래를 운송 수단별로 구분하면 해운 32%, 육상여객 32%, 물류 13%, 트럭 3%, 철도 10%로 나눠짐

자료 : www.logisticsmgmt.com, 2013.8.2.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Maersk Line, 선박의 경제속도 운항을 통해 해운시장 불황돌파

○ Maersk Line은 컨테이너 해운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비(船費) 절감으로 수익창출
- 올해 초부터 각종 예측보고서의 세계해운시황전망은 비관적이었지만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Maersk Line은 비용 절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음
- Maersk Line은 선박의 운항 속도를 줄이는 경제적인 운용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여 원가를 낮춤으로써 운임의 하락과 유럽-아시아 노선의 물량감소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연료 효율성이 높은 세계 최대 규모의 18,000TEU 컨테이너선인 Maersk MC-Kinney Moller를 투입하게 되면서 운임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 상황임

○ Maersk Line은 작년 동기대비 순수익은 약 45% 증가, 하반기 운임 상승도 기대
- Maersk Line은 원가 절감을 통해 올해 상반기 4억 3,900만 달러의 순수익을 거둠으로써 작년 동기 2억 2,7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따라서 올해 전체 수입 전망도 작년 4억 6,100만 달러 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Maersk Line은 세계교역성장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2~3%까지 낮추었지만 3분기까지 업계 평균 운영수익인 5%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해운시황의 약세 속에서도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Maersk Line의 최고 경영자인 Nils Andersen에 따르면 현재 해운 물동량은 기존 예측보다 더욱 줄어들었고 도움이 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은 없는 상태이지만 하반기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임

○ 경쟁사와의 제휴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선도적 위치 강화
- Maersk Line은 내년 2분기부터 물동량이 많은 중심 운송노선 3곳에서 경쟁사인 MSC 및 CMA CGM와의 운영 제휴(Alliance)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한 애널리스트는 제휴를 통해 Maersk Line의 시장 점유율이 37%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를 표명했음
- Maersk Line의 실적 증가는 해운·항만·석유와 관련한 15개 핵심 사업부가 있는 모기업인 AP Moller-Maersk의 연간 순이익을 당초 29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까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컨테이너 수송 운임은 작년 2분기 대비 13% 하락하였고 전체 물동량도 2% 감소했지만 AP Moller-Maersk 전체 매출의 반을 차지하는 Maersk Line의 실적 증가로 인해 해운시장 변동에 보다 덜 민감한 형태로 수익구조가 변화하였음

자료 : www.ft.com, 2013.8.1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UPS, 중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을 위해 물류시설 확장계획 발표

ㅇ UPS는 중국 청두와 상해에 2개의 제3자물류(계약물류)시설을 추가 개설하기로 발표
- 이로써 UPS는 중국 87개 도시에 130개의 제3자물류시설을 보유
- 제3자물류(계약물류)시설은 중국내에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화주에게 유통 및 보관창고 솔루션을 제공
- 중국 청두와 상해에 지어지는 두 개의 비 보세 물류시설은 국제공항 및 주요 도로망 가까이에 위치하며, 이를 통해 UPS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신흥 중산층들의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음
- 청두의 새로운 47,000 평방피트 제3자물류(계약물류)시설은 청두 슈앙리우 국제공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칭과 청두를 포함한 서부지역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 상해의 새로운 물류시설은 70,000 평방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해 푸동공항 UPS 국제물류 허브(중국 항공화물 물동량 보유)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써 북미,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시장으로의 화물 수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청두의 새로운 제3자물류시설은 중국 정부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Go West' 계획에 입각한 결정임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8.14.

고안나 연구원 (☎ 02-2105-2925, ako@kmi.re.kr)

□ 러시아 첼랴빈스크지역에 Yuzhnoural'skii 물류단지 설립

ㅇ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역 간의 물류 중심이 될 Yuzhnoural'skii 물류단지가 앞으로 1년 후에 설립될 예정
- Elena Murzina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첼랴빈스크지역의 화물운송 및 통관절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Mikhail Yurevich 첼랴빈스크 주지사는 Yuzhoural'skii 물류단지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통관을 한 후, 러시아 전 지역에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이 프로젝트는 2012년 5월에 첼랴빈스크 주지사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가 계약을 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이 지역에 시공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단계에 와 있음
- 물류단지에는 물류 생산지역, 통관이 진행되는 A등급의 임시창고, 철도 컨테이너 터미널이 조성될 계획임
- 첫 단계로 2014년 7-8월에 Yuzhnoural'skii 물류단지에서 2.5백만 톤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시범통관을 하게 되며, 이후 연간 5백만 톤까지 화물을 처리하게 될 예정임
- 첫 단계 투자액은 1억 2천만 유로이며, 이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구현될 예정임

자료 : www.itar-tass.com, 2013.8.5.

박한나 연구원 (☎ 02-2105-2914, hnp@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공동추진 →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단독추진 →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